



“파라미타 밭족 가슴 뿌듯”

농어촌·빈민층 포교엔 아쉬움

포교원장직 떠나는 성타스님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출범 시켜 중년차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 가장 뿌듯합니다. 또 청소년들을 이끌 수 있는 선생님들의 모인인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구성해 한국불교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95년 11월 포교원장으로 취임, 2년8개월동안 재직하며 포교관련 각종 규정의 제·개정, 통일법요집·불교교리·불교입문 출판 등 포교기반의 토대를 다진 성타스님이 15일자로 사임했다. 성타스님은 20일 불국사 주지로 취임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한 농어촌과 빈민층을 위한 포교에는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대한 포교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가 되어 아쉽다는 말로 떠나는 심정을 내비쳤다.

성타스님은 포교는 곧 불교의 존재 이유라며 “개인의 깨침은 완성이 아니고 깨우침을 중생들에게 전해야 비로소 완전한 불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포교원이 종단의 가장 비좁은 기구가 돼야 하며, 그때에 한국불교 또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요. 그리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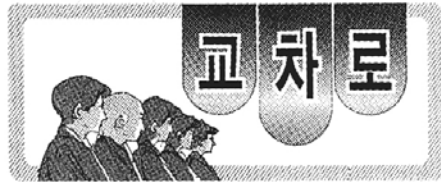
〈육조단경〉의 “常見自己過 勿見他人過(항상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되, 남의 허물을 살피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맺음을 한다는 성타스님은 “경전의 한구절을 늘 놓지 않는다면 저절로 참깨의 생활이 될 것”이라며 “참회가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며 자신에 내재된 청정성을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의 최우선 중무는 포교”라고 밝힌 성타스님은 “불국사에 불교종합 영상센터를 개설해 한국불교와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입체적으로 알리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스님들의 수행공간 이외의 불국사 경내를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연수원 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실직자들에 쌀을 보냅니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저소득 실직자 가정을 위한 자비의 쌀 보내기 운동본부’는 실직자 가정에 쌀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국민은행: 023-21-0551-926
- 조흥은행: 390-04-261032
- 농협: 053-12-053051 ● 우체국: 010041-0339839 (예금주: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다촌치문화 학술상 수상

성우 대구 파계사 주지는 7일 한국 다도협회 주최 제2회 다촌치문화상 시상식에서 차문화 학술상을 수상했다.

연변 발해사 학술회 참석

법륜 한국 JTS이사장 스님은 연변 대학 발해사 연구소 주최로 3일 열린 ‘발해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사 학술토론회’에 참석키 위해 4일 출국했다.

사천왕 복원 민등불사

능허 예천 용문사 주지는 용문사 사천왕 및 사천왕문 복원 작업 만 등불사를 19일 오전 11시에 봉행한다. 용문사 사천왕은 1678년에 조성된 국내 최대의 규모다.

신행실수 철야 법회

해인 삼화 불교대학장 스님은 4~5일 1박2일간 통신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행실수 철야정진법회를 가졌다.

노인 초청 니들이 행사

설음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8일 동작구 노인 2백 20명을 초청, 용산전쟁기념관, 장충국민관광단지 니들이 및 백조예술단 공연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영남인민 대회서 법문

현장 전남 대원사 주지는 5일 전국 영남인민대회 주최 IMF 극복과 통일 을 위한 전국 영남인민대회 회를 위한 법회에서 법문했다.

전일 지장기도 50일 천도제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1일 선원사 복원 전일지장기도 50일 천도제와 수각본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오승님 초청 이정수계시

법운 경기도 광명시 청룡사 주지는 11일 대만 오승님(암항사 주지)을 초청, 마정수계회 및 생전에수재를 봉행했다.

북한 문화답사 위해 방북

고은 시인(본지 논설 고문)은 북한지역 문화 답사를 위해 7일 방북길에 올랐다. 8일부터 보름동안 평양 금강산 칠보산 백두산 등을 답사하는 이번 기행에는 유홍준 김주영씨 등 모두 6명이 참가하고 있다.

LA 선각서시 강연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은 미국 LA 선각사가 주최하는 특별 강좌에 초청 받아 지난 8일 출국했다. 정교수는 ‘현대인의 보살도’ 주제로 강연한다.

교수불자연 하계수련

조희영 교수불자연합회장은 3일부터 6일까지 충북 괴산 다



실직가정에 5백만원 기탁

성각 남해 망운암 주지는 3일 오후6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실직여성가장돕기에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성각스님은 6월17~23일 서울 윤현궁 미술관에서 ‘실직자 가족돕기 전시회 특별초대전’을 가졌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c.com>

보수원에서 98년 교수불자연합회 하계수련 대회를 가졌다.

한국불교언론인회 현판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KBS 해설위원)은 21일 오후6시 마포 다보빌딩 2층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 사무실 개원 및 현판식을 갖는다. (02)719-4083

학사 기금미려 비지회

강건기 전 북불교대학장은 전북불교대학 학사 미려를 위한 비지회를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북 전주시 삼천동 새학사에서 가졌다.

로티리 3710 총재에

이상진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4일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국제로티리클럽 3710지구 총재에 취임했다.



새 국제포교사 24명 탄생

9월중 국제포교사회 결성키로

제3회 국제포교사 연수과정 수료식이 4일 연동국제포교사회관에서 열려 24명의 새 국제포교사가 탄생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단계중포교원장 성타스님과 포교부장 원혜스님, 연수국장 박경스님, 연동회관 원장 원명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타스님은 “국제포교사 시대에 우리나라 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원은 외국인 사찰관광 안내, 국제행사 통역 등에 우선적으로 국제포교사를 배치하고 해외포교도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자율적 수행불교 펴고 싶어”

지리산 수도장 선림원 연 거정스님

“불교는 깨달음의 법이며 자아완성을 향한 길입니다. 그 깨달음을 향해 수련하는 것이 바로 선림원입니다. 선림(善林)이란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 가뭄 목욕하스스로의 수행을 다져 간다는 뜻입니다.”

지리산 성짓골에 누구나 함께 만나 수련할 수 있는 선림원 자율수도장을 마련한 거정스님의 말이다. 조용하고 공기좋은 3천여평의 부지에 대종방과, 단독 선실 등 생활과 수련의 공간이 하나로 활용되는 수련장으로 구성된 선림원은 올 여름 40평규모의 수련장 한채를 우선 개장한다.

거정스님은 “앞으로 좀더 규모가 커지면 종교법인 선림재단으로 만들어 종교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수련장으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95)84-1193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불교TV 백화점 ‘효도상품전’ 인기



Focus

불교TV가 서 울 경기 지역 뉴 코아 백화점 7개 분점에서 ‘효도상품전’을 펼치고 있다. 삼베수의, 향, 다기, 불교서적, 사찰음식, 생활한복 등 다양한 용품을 갖춰 손님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효도상품전은 불교TV 경영난 타개와 불교알리기의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화점측은 “일반 상품들 속에 마련된 효도상품전에 3~40대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며 “6월23일부터 한달간 기획된 효도상품전은 막바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opia.com>

향운정주 set 출시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향운정주

정성과 정결함이 깃든 향운정주를 사용하십시오.

「향운정주」는 순수 유리를 녹여 진원(眞圓)으로 만든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이나 모래를 대체한 제품입니다.

「향운정주」는 그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미타경'과 '법화경'에 유리는 금, 은, 자거, 마노, 산호, 진주등과 함께 극락세계를 장식한 보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향운정주」는 향이 잘 꽃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영구적인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출로 인체에 유익합니다. 또한, 법당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향운정주를 애용하시는 분들의 개별구입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저 최상품의 향과 향로로 향운정주 set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운 정주 set : 향운정주, 청자향로, 고급향



향운정주는

- 유리로 만든 작은 구슬로 쌀과 모래보다 실용적이며 향이 잘 꽃아집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민영구적입니다.
- 우리제품이므로 환경오염과는 무관합니다.
- '향운'은 향운(香雲) 즉 향을 피워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株式會社 世湖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7-30
TEL : (02)272-8886/7
FAX : (02)278-6675



● **아미타경**
극락세계는 불보로 된 연꽃이 있어 팔공덕수가 넘쳐 흐르며 연꽃 비어에는 온 금 모래가 깔려 있다. 사방의 길과 계단은 금 은 유리 파래로 만들어졌으며 그 위에 누락이 있으니 벽 시 공 은 유리 파래 자거 불은구슬로 아름답게 장식했다.

● **법화경**
약취대수프리로 칭기명호하여 축복원하여 약취원인원중생이 위구 금 은 유리 자거 마노 산호 호박 진주등보하여 입어내려키던 기사후통이 화기신반하여 프터내귀귀하여도 기중에 약취대수프리로 칭기명호하여 축복원하여

향운정주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 실용신안등록 97-18095 ·

香雲淨珠

